

한국의 산업화와 가족기능의 변화

한 남 제*

- I. 머리말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결과
- III. 한국가족 기능의 변화
- IV. 맺음말

I. 머리말

사회에는 여러 사회제도들이 있으며 이들 제도들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상호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제도와 경제제도간에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전자의 변화가 후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자녀들에 대한 재산상속 제도가 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혼한 자녀가 분가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가족 형태와 친족 조직의 유형이 산업화 과정에 수반되는 노동력의 이동(인구의 지리적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경제의 발전(변화)은 가족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산업화란 단순한 경제의 변화 이상의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거기에 따른 제반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제도가 변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농업 위주의 경제가 상공업 위주의 경제로 바뀌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에도 존재해 왔던 핵가족의 비율이 증가되고 가족의 구성형태에 변화를 주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가족의 많은 변화 중에도 가족 기능의 변화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변화되지 않는 제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은 그 가족이 존재하는 시대의 특성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을 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개인의 인격 도야를 지향하는 도덕 교육을 중요시할 수도 있고 도구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결과

일부 사회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가족 기능이란 용어에는 몇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Bell, N. W. and Vogel, E, 1968 : 7). 가족 기능은 가족 전체, 일부 다른 사회제도 혹은 개인을 위해서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가족내에서 가족성원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족 기능이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들 모든 설명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은 전체 사회에 대해서 가족 성원의 교체, 일차적 사회화, 참여 동기의 부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다른 사회제도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개인에 대해서 퍼스널리티 형성, 지위부여, 긴장 관리(완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 수행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가족은 문화권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또 동일한 문화권에서도 개별 가족은 다소 상이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기능에 대한 설명을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회발전 정도에 따라 중요시되는 가족 기능이 상이하다는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시사회와 농업사회에서는 가족이 좀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사회제도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에는 가족 내지 친족이 거의 유일한 사회제도였으며 따라서 아주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 기능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기능(생산과 소비), 교육적 기능, 종교적 기능, 질서 유지의 기능 등을 모두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되면서 사회제도의 분화가 이루어져 전통적으로 가족이 수행하던 많은 기능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널리 알려진대로 R. MacIver는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비본질적 기능은 타기관(제도)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가족은

가족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본질적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MacIver, R.M. and Page, C.H., 1962 : 263-267).

MacIver는 통치(질서유지) 기능은 여러 정부 기관으로, 종교 기능은 교회로, 교육 기능은 유치원과 학교로, 경제적 기능은 각종 경제 기관으로, 보건 기능은 병원으로, 오락 기능은 상업적인 기구로 각각 이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족은 본질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가족의 본질적 기능은)성적 욕구의 안정적 만족, 자녀의 출산과 양육, 가정(home)의 제공 등이다. 이들 본질적 기능도 그 내용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G.Murdock은 가족의 기본적 형태인 핵가족이 인간의 사회생활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네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적인 기능, 경제적 기능, 자녀출산 기능 그리고 교육 기능이 이들 네가지 기본적인 기능이다. 첫째와 세번째 기능 즉 성적 기능과 자녀출산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사회가 존속할 수 없다. 두번째 기능인 경제적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의식주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생존자체가 어려워진다. 네번째인 교육기능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문화가 계승될 수 없다. 교육-사회화 기능은 그 사회가 이룩한 넓은 의미의 문화를 다음 세대로 이관시키는 기능이다. Murdock은 핵가족이 세계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를 이들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Murdock, G.P., 1949 : 10).

그러나 Murdock은 가족이 이들 네가지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기능들이 핵가족이 수행하는 유일한 기능들은 아니다. 하나의

확고한 사회조직 *a firm social constellation*으로서 가족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빈번히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때론 가족은 아버지를 사제로 한 종교적 숭배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가족은 토지 소유, 복수(보복) 혹은 오락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지위는 개인적 성취에 의해서 보다 가족의 위치에 따라 주어질 수도 있다. 이들 보충적인 기능들은 가족의 존재를 설명해주지는 못해도 가족의 힘에 보탬이 된다.」(Murdock, G. P., 1949 : 11)

Murdock이 주장하는 핵가족의 보편적 존재와 네가지 기본적 기능은 널리 인정되는 주장이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회의 모든 가족들에 이러한 설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다.

Ira Reiss는 Murdock이 주장하는 핵가족의 보편적 존재와 네가지 기본적 기능이 타당한지는 비교적 용이하게 검증해볼 수 있다면서 인도의 Nayars족, Jamaican족, 이스라엘의 Kibbutz 그리고 Trobrianders의 가족제도를 설명한 뒤 핵가족은 많은 곳에 존재하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고 모든 형태의 가족이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네가지가 아니고 한가지 즉 신생아의 양호적 사회화 *nurturant socialization of the new born*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호적 사회화란 감정적 지원과 반응을 제공하는 것이다(Reiss, I.L. and Lee, G.R., 1988 : 24).

Blood와 Wolfe는 가족 기능이란 가족이 행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가족은 전체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성원을 출산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중인 단위로서 자기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Blood, R.O. Jr and Wolfe, D.M.

1960 : 76).

구체적으로 그들은 가족 기능을 경제적 기능, 자녀출산 기능, 우애 기능, 이해와 감정 만족의 기능, 애적의 기능 등으로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가족 기능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방면의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최재석은 1968년에 한국 농촌가족의 기능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의 농촌 부락에서 실시된 가족 기능에 대한 조사에는 (1) 성 및 애정의 기능 (2) 생식의 기능 (3) 양육의 기능 (4) 경제적 기능 (5) 교육의 기능 (6) 보호의 기능 (7) 휴식 및 오락의 기능 (8) 종교적 기능 등을 조사항목으로 취급하였다(최재석, 1975 : 143-195).

최재석은 1960년에 서울에서 실시한 도시가족의 기능에 대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항목들을 조사대상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농촌의 차이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 내용들은 상이하다(최재석, 1982 : 168-205). 농촌에서는 성 및 애정의 기능에서 혼외성관계에 대해 설문하였으나 도시에서는 부부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생식의 기능에 대한 내용은 특히 상이한 내용들이 설문되었는데 농촌가족과 도시가족의 경제적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남제는 1975년에 도시 가족의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구시내의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조사에서는 도시 가족의 기능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기능, 경제적 기능, 우애적 기능이 취급되었다(한남제, 1984 : 70-147).

가족의 기능은 가족 성원의 역할수행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볼 때 가족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족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가족 역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한남제, 1989 : 394-395).

III. 한국가족 기능의 변화

이론적 고찰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사회가 발전하여 농업위주의 사회에서 상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사회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위치도 달라지고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도 변화된다. 대체로 가족 기능은 축소되고 기능의 내용도 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꼭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겠으나 1960년대부터 산업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총생산중 2차,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였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 각급 학교의 취학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교육 수준 역시 많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부정적인 결과도 수반되었다. 각종 범죄의 증가와 도덕의 타락 등 많은 역기능적 현상이 산업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속에서 가족제도도 변하게 된다. 핵가족의 증가, 이혼의 증가, 가족 세력관계의 변화 등 여러 변화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의 변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문화권의 많은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가족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보다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의 축소되거나 내용이 변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과거에 가족이 수행하던 많은 기능들이 현재는 다른 제도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통치(질서 유지), 경제, 교육, 종교, 오락, 의료 기능은 그것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제도들에 의하여 좀더 전문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이러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족은 전문 기관이 이들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거나 부분적으로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

1. 자녀 출산 양육의 기능

인간은 일정한 기간동안만 생명이 유지되는 생물 유기체이기 때문에 사회의 계속적인 존속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 성원의 지속적인 충원이 필요하다. 이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통해서 가족이 사회에 대해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 지구상에는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자녀출산과 양육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다. 동일한 지역의 가족이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능수행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출산 자녀의 수, 자녀 양육의 방법, 자녀 양육의 의미와 문제점들은 동일하지 않다. 한국 가족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녀 출산 양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과거의 한국 가족에서는 자녀 출산과 양육의 기능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고 있었다. 결혼 이후 자녀 특히 아들을 낳음으로써 비로서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조선조 시대에만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이며 몇 안되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다.

자녀를 낳되 많은 수의 자녀 특히 많은 아들을 낳

는 것이 권장되고 있었다. 「다남다복」이란 말이 널리 사용될 정도로 많은 수의 자녀는 인간의 성공-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까지 취급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가계의 계승, 노동력의 확보, 노후의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 모든 면에서 자녀 특히 아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생활수준이 낮고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짧았다. 특히 유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중요한 일들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자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 수명을 연장시켰고 특히 유아사망률을 감소시켰다. 자녀는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자산이 아니라 양육과 교육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되고 있다. 노후의 경제적 지원책도 금융제도와 사회보상 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달리 마련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자녀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꼭 출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1975년 조사에서 자녀가 없어도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1.4%인 것으로 나타났으나(한남제, 1984: 77), 1991년의 조사에서는 「반드시 자녀를 둘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8.5%이고 1.2%는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다(공세권 외, 1992: 123-126). 이 경우에도 90.3%는 반드시 자녀를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아직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희망하는 자녀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75년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남 1녀, 1남 1녀, 2남 2녀의 순이었고 평균 2.89명 정도의 자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한남제, 1984: 80). 그

러나 보다 최근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는 현저히 감소하여 2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조사대상자의 의식 조사이기 때문에 표본선정에 따라 동일한 시기에 실시된 조사에서도 다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연도별 출산력 및 가족보전 실태 조사자료에 의하여 평균 이상자녀 수는 1965년 3.9명, 1971년 3.7명, 1978년 2.7명, 1988년 2.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공세권 외, 1992: 120).

자녀의 필요성이나 원하는 자녀의 수도 변하지만 자녀 양육의 의의도 상당히 변하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가문의 계승, 조상에 대한 제사, 부모에 대한 효도, 노동력 확보 등이 중요한 의의였으나 현재는 현대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1975년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들은 「자녀가 있어야 가정생활에 의미가 있다」, 「자녀가 없으면 허전할 것 같고 자녀는 부모에게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 「자녀가 있어야 부부관계가 좋아진다」, 「노후에 의존할 수 있다」는 순으로 자녀 양육의 의의를 지적하고 있었다. 여자 응답자들은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응답을 두번째로 지적한 사람이 많은 것을 제외하면 남자들의 주장과 같았다.

1991년 서울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남자들은 「가문 유지를 위해」 「정서적인 만족을 위해」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를 두는 것이므로」의 순으로 자녀의 의의를 지적하였다. 여성들은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를 두는 것이므로」 「정서적인 만족을 위해」 「가문의 유지를 위해」의 순으로 자녀 양육의 의의를 지적하였다. 노후에 의지하기 위해서, 부모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등의 의견은 극소수였다(변화순, 김현주, 1992: 144).

자녀 양육은 대체로 자녀의 신체적 성장을 돕는 역할을 의미한다. 인간은 원래 오랫동안 부모 특히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출생한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의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어야 한다.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젖을 먹여 아이를 키우는 일이 중요시되었다. 조선시대의 우리나라의 사회 풍습을 잘 묘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족의 자녀 양육 기능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달레는 「사회의 모든 계급에 있어서 부인의 주된 임무는 어린이를 기르다기보다 오히려 젖먹이는 일이다」. 어머니는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보다도 신성시되는 이 의무에서 벗어나는 수가 없다. 이 나라에서는 인공 포유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으며, 따라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는 어린이들은 거의 다 살지 못한다. 조선 사람들은 동물의 젖을 짚줄 모르며 암소와 염소의 젖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더 나이 어린 다른 어린이가 없을 때에는 어머니는 그 젖먹이에게 일곱 여덟살 때까지, 또 때로는 열살, 열두살 때까지도 젖을 먹인다. 이런 불쾌한 버릇은 이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 같이 생각되고 있으므로 이런 일은 공공연히 행해지고, 거의 제 어머니만한 큰 어린이들이 젖통을 쥐고 있는 꼴이 보이지만, 아무도 상을 쟁그리려 하지 않는다(샤를르 달레 저, 정기수 역, 1983 : 214).

현재 한국의 일부 어머니들은 처음부터 모유가 아닌 우유로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며 또 수유기간의 과거와 같이 길지도 않다. 그러나 근래 다시 모유를 먹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하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과학화된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주사는 물론이고 자녀의 신체적 성장을 돕는 각종 대체 식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결국 한국 가족은 자녀 출산 양육이란 본질적 기능을 시대 상

황에 맞게 수행하고 있다. 출산 자녀 수의 감소, 자녀 양육 방법의 변화 등이 변화된 상황에 맞는 기능 수행의 예가 된다.

2. 교육(사회화) 기능

교육(사회화) 기능은 자녀를 정신적으로 성장시키는 기능이다. 사회가 발달되지 않았고 사회제도가 분화되지 않았던 미개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교육이 가정내에서 이루어졌다. 당시의 가족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유일한 제도였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전통사회에서도 젊은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있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서당, 정사, 서원 등 교육기관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교육기관이었던 서당의 경우 입학 연령이 제도화된 것은 아니었으나 7,8세 경에 입학하였다. 학습 내용은 천자문으로부터 시작하여 4서 3경에 이르기까지의 광범한 것이었다(이동환, 1979 : 801-806). 이 당시의 교육은 주로 문자교육과 유교적 가치 규범의 교육이었다.

교육 대상에서 여성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었다. 여자가 글을 잘하면 박복하다는 봉건적 사고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남녀칠세부동석」이란 유교 윤리가 엄존하는 사회에서 여자들이 서당에서 교육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김용숙, 1979 : 590) 일제 식민지 시대에 처음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 남녀학생의 취학 비율은 현저히 상이하였다. 1912년 현재 전체 국민학생중 여학생의 비율은 9%에 불과하였다. 그 이후 여학생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남녀학생의 비율은 동일하며 대학에서도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교육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 교육내용을 확연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교육(사회화)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도야, 사회생활에 필요한 역량의 축적, 사회의 지배적 가치의 전수,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지만 이들 교육이 어느 기관(제도)에서만 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 사회는 주요 담당분야가 있고 다른 제도가 수행하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때로는 특정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개인의 인격도야는 주로 가정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교육은 이를 지원하고 또 부분적으로 직접 담당하기도 한다. 반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주로 학교가 담당하고 있으며 가정은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직접 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문화의 전수는 모든 교육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사회통합은 주로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의 생물유기체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터득해 나간다. 그리고 지배적 가치관을 내면화해 간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들이며 특히 어렸을 때 가까이서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다. 이들은 가족이며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의 교육(사회화) 기능은 중요하다.

현재 한국가족은 자녀의 인격도야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80~1981년 사이에 실시된 실증적인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가정에서는 아들이 훌륭한 인품, 책임감, 자립심, 원만한 인간 관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화의 목표이다. 딸에 대해서는 훌륭한 인품, 행복한 가

정생활, 원만한 인간 관계, 책임감 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사회화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한남제, 1984 : 250-260).

사회계층에 따라 사회화의 목표가 어떻게 상이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사회화의 목표로 예의수범형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규범에 동조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화의 당면 목표인 것으로 볼 수 있다(김규원, 배종렬, 1992).

한국가족은 교육기능중 학교교육의 지원기능을 중요시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자녀의 사회화에 미치는 많은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보통교육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급학교 입학시험 특히 대학 입학시험 준비를 지원하는데 한국가족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학입학을 앞둔 자녀 자신들도 하루 17-18 시간의 공부를 하고 있으며 어머니들도 자녀의 시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새벽 5시 경에 일어나서 밤 12-1시에 잠들 때까지 자녀의 방을 청소해주고 빨래를 해주며 장을 보고 식사 준비를 한다. 자녀를 깨워주고 밤에는 자녀가 귀가하기를 기다린다. 수험생을 둔 가족의 과반수 이상이 TV 시청, 손님 초대를 자제하고 있으며 잠을 적게 잔다. 모든 가족이 수험생의 입비준비 위해 협조한다는 응답이 79.5%에 이른다(한인숙, 박춘호, 1992 : 37-38).

인격도야를 중요시하던 전통적 교육 목표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역량 축적-대학졸업-의 기능을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한국 가족의 기능 수행이 변화되고 있다. 여기서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이기적 퍼스넬리티가 형성되고 성적 부진 학생의 탈선이 증가한다. 결국 한국 가족의 교

육(사회화) 기능은 파행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로는 인격 교육을 중요시하면서 실제로는 능력 배양을 중요시하는 2중적 목표가 적절히 조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3. 가족의 경제적 기능

가족의 경제적 기능이란 결혼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용역(서비스)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것으로 정의하는 학자들이 있다(Blood, R.O. Jr and Wolfe, D.M., 1960 : 80). 주지하다시피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가족은 현금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였다. 그래서 가족은 바로 경제적 단위(생산 단위)였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생산이 대부분 가정밖의 공장과 회사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가족은 생산단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에 가족 성원 특히 남성들이 가정밖의 직장에 취업해서 금전적인 수입을 가져오므로써 가족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인들은 수입된 금전으로 가족이 필요한 물질을 구입해서 가사를 운영하는 소비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가족도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 위주의 조선시대에는 가족이 하나의 경제적 생산 단위였다. 극소수의 상류(관료)집단에서는 남자들이 공직에 취업해서 경제적 수입을 가져왔다. 이 경우 여자들은 하녀들을 지휘하여 안방의 정돈을 유지하는 것으로 족했다(샤를르 달레, 1983 : 214). 그러나 국민의 다수였던 생산계층에서는 남녀가 같이 농사일에 종사하였다. 남자는 주로 논농사를 맡았고 여자들은 밭농사를 맡았다. 그리고 겨울에 남자들은 연료로 쓰기 위하여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고 여자들은 베를 짜고 옷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하

며 세탁을 하였다(샤를르 달레, 1983 : 25). 결국 당시에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였고 여기에 남녀가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가족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화 초기에 도시에서는 남자들만 임금노동자로 취업해서 가족의 경제적 기능(생산)을 수행하고 여자들은 가정내에서 가사관리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처음에는 남녀간에 그러한 역할 분담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중반에 세대주와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적인 조사에서 부인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집안살림을 잘해나가는 것이 남편의 일을 돕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고 있었다(51.7%). 그 다음으로 남편을 격려하고 보살피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34.7%). 그리고 직접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한남제, 1984 : 114).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여성 스스로 가정밖에서 취업해서 가계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일반 사회성원들도 여성 취업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처음에는 미혼 여성의 취업을 반대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용하게 되고 얼마후에는 권장하는 단계로 변한다. 그 다음에는 기혼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도 반대, 허용, 권장의 단계로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 선진 산업사회의 예이다(한남제, 1991 : 260-261). 우리나라에서 산업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취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취업 여성의 연령에 따라 비율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여성의 취업률은 1960년 25.1%, 1970년 37.2%, 1980년 40.5%,

1990년 46.2%였다. 최근에는 전체 여성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화 초기에는 학력이 낮은 미혼 여성들이 섬유공장 등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점차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전문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각급 학교 취학률이 증가하면서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취업 여성 중 기혼 여성의 취업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그러나 1990년의 여성 취업자중 정규 임금을 받는 사람은 43.8%이고 일일 임금이 12.9%, 자영업 종사자 18.8%, 무급 가족노동이 24.5%로 나타났다(통계청, 1992).

이 자료는 가족의 경제적 기능이 부부 모두에 의해서 수행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한다. 가족의 소비기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부인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많은 가정에서 여성들이 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식비의 결정 등 일상적인 가사의 결정에는 여성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4. 우애기능

Burgess와 Locke는 역사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제도가 제도적 가족에서 우애 가족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Burgess, E.W. and Locke, M.J., 1953). 이러한 주장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근대적인 사회와 근대사회에서 가족의 존립 기반이 상이함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의 전통사회에서는 가족 성원 특히 부부가 제도 때문에 가족생활을 영위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부부간의 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교제를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산업사회에서는 남녀가 결혼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동기도 부모에 대한 효도나 가문에

대한 의무라기보다는 남녀간의 사랑이다. 결혼 이후 가족생활을 지탱하는 기반도 부부간의 애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안정성을 이룩하기 위해서 가족 성원간의 우애를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족의 우애 기능은 과거의 전통 가족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으로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귀속적 지위보다 성취 지위가 사람의 계층상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 성원들은 과거의 신분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치열한 개인간의 경쟁속에 살게된다. 경쟁의 결과에 따라 가장뿐 아니라 가족 성원 전체의 사회계층상의 위치가 결정된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경쟁에서 오는 만성적인 긴장을 피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할 곳은 가정뿐이다. 따라서 가족의 긴장 관리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어야 한다. 결국 우애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가족 성원의 긴장을 관리하는 길이기도 하다.

1991년 4월부터 1992년 1월 사이에 서울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82.5%가 가능한 여가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41.6%는 가족과 자주 외출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변화순, 김현주, 1992 : 78). 현재의 한국의 부부들은 친목 단체나 봉사 단체에 공동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직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로의 친구를 알고 있으며 자주 동반외출하고 같이 물건을 사러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는 일도 드물지 않다(한남제, 1984 : 124-147).

최근 도시와 농촌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서도 많은 가족은 모여서 놀이(웃놀이, 화투놀이)를 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0년에 실시한 조사에

서도 도시 가족의 73.9%가 가족 단위의 여행이나 나들이를 1년에 1-5회하고 있으며 86.5%는 윗놀이, 화투놀이 같은 놀이를 1년에 1-5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남제, 1991: 186).

그리고 농촌 가족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1992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농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가족 단위 여행이나 나들이를 1년 평균 1-5회하는 가족은 6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윗놀이나 화투놀이를 1년 평균 1-5회하는 가족은 64.2%인 것으로 나타났다(한남제, 1993: 192-207).

결국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한국 가족은 현재 우애 기능의 수행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족 기능은 현대 가족의 특징인 가족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가족 성원의 긴장 관리를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함에 따라 사회의 하위 제도인 가족제도도 변하게 된다. 가족의 기능이 축소되고 기능 수행의 내용도 바뀌고 있다.

자녀 출산 양육의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출산 자녀의 수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의 양육 방법은 바뀌고 있다. 교육 기능은 주로 학교라는 전문적인 교육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고 가정은 학교 교육의 지원 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가족이 자라나는 사회 성원의 인격도야라는 교육 기능은 여전히 수행해야 한다. 이들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할 때 사회 전체의 도덕과 윤리 수준이 저하될 것이다.

도시 가족은 경제적 생산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가족 성원들은 가정밖에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여성의 취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경제력 확보-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가사노동의 분담을 포함한 가사관리 역할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이 경제적 역할 증대에 따라 독신여성의 증가와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라는 또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 중요시 되고 있는 우애기능을 잘 수행함으로써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우애기능의 적절한 수행은 가족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가족의 기능이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변화의 한계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족 고유의 기능은 다른 사회에 의해서 대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공세권 외 공저.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규원, 배종렬. 1992. “대구지역의 사회계층별 자녀 사회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8권, 대구: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소.
- 김용숙. 1979. 「한국여속사」, 한국문화사대계 7권,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편.

- 변화순, 김현주. 1992. 「가족의식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샤를르 달레저 정기수 역. 1983. 「조선교회사서론」, 서울 : 탐구당.
- 이동환. 1979. 「이조시대의 문교풍속」, 한국문화사 대계 8권, 서울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최재석. 1975. 「한국농촌사회연구」, 서울 : 일지사.
- 최재석. 1982. 「현대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 통계청. 1991. 「경제활동인구연표」, 서울 : 통계청.
- 한남제. 1984. 「한국도시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 한남제. 1989. 「한국현대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 한남제. 1991. 「미국의 가족제도」, 대구 : 경북대학교출판부.
- 한남제. 1991. “도시가족의 역할구조”, 「우보 류시중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 한남제. 1993. “농촌가족의 역할구조”, 「평화연구」 18집, 대구 :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 한인숙, 박춘호. 1992. 「어머니는 고달프다」, 한국사회학회 가족·문화연구회.
- Bell N.W.and Vogel, E. 1968. *A Modern Introduction to the Family*, New York : the Free Press.
- Blood, R.O. Jr. and Wolfe D.M. 1960. *Husbands & Wives :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New York : The Free Press.
- Burgess, E.W. and Locke, H.J. 1953. *The Family :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New York : American Book Co.
- MacIver, R.M. and Page, C.H. 1962. *Society : An Introductory Analysis*, London : Macmillan & Co. LTD..
- Murdock, G.P. 1949.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 Reiss, I.L. & Lee, G.R. 1988. *Family System in America*(fourth edi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